

그렇게 살 일입니다.

떠날 때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지혜를 지니고 살 일입니다. - 성전스님 -

다목적 디지털 R/F(투시촬영) 시스템 ‘소니알비전 G4’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최첨단 다목적 투시 촬영 시스템 장비인 ‘소니알비전 G4(SONIALVISION G4 LX Edition)’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17x17인치의 광폭 디텍터를 탑재하여 식도, 위장은 물론 양측 하지 전체를 한 번에 관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을 대폭 단축함과 동시에 진단 범위를 극대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특히 최신 실시간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해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화하면서도, 영상의 선명도는 극대화했다. 또한 2m 이상의 전신 영상을 왜곡 없이 합성해 정밀한 계측과 진단을 지원한다. 검사 테이블 높이를 47cm까지 낮출 수 있어, 이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와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재)법보선원 ‘로봇수술센터 구축 약정기금’ 3억 원 기부 회향

(재)법보선원은 지난 1월 30일과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발전을 위한 ‘로봇수술센터 구축 약정기금’으로 총 3억 원을 회향했다. 이번 기부는 송담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깊은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법보선원은 로봇수술센터 구축을 위해 총 40억 원을 약정하고 현재까지 누적 37억 원을 기부했다. 한편, 2021년 12월 9일 개소한 ‘송담 로봇수술센터’는 (재)법보선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로봇수술 누적 1,000례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앞두고 있으며, 병원의 첨단 의료 역량 강화와 환자 중심 진료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향은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교병원 발전이라는 공동의 원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10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실무 보수교육과 우수 봉사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버스 앱 이용 방법, 키오스크 활용법, CS 교육 등의 보수교육과 함께 2,000시간 이상 활동한 모범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 선물과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표창받은 자원봉사자들은 “병원이 낯설고 불안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분들 곁에서 작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공공기관 무료 주차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문의는 사회사업실(031-961-8363)로 하면 된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설 명절맞이 떡국 나눔 돌봄 행사 시행

설 명절을 맞아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2월 13일 입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설날 떡국나눔 돌봄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임에도 병실을 지켜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료진은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살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영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